

5월 12일

김세봉

더 자고 싶었는데 일어나야 되는 시간 보다  
더 빨리 일어났다. 자자증났다.

하루 한번 끼면 잘 못 잔다. 아날 때 도 있긴 한다

일어나서 친구랑 자자증면을 먹었다.

근데 맛이 없어서 거인 다 남겼다.

그래서 돈이 아까웠다.

그리고 말바를 갔다. 이틀째 렌즈를 끼고

안 썼고 갔다. 너무 힘들었다.

집에 가서 엄마랑 이야기를 하고

갔다.